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거동고조신하청 파업노동자  
22명, 총 징역 16년 2개월

성폭력 공익제보로 해임된 교사  
복직 요구 시위서 23명 연행...  
교육감 사과 요구했을 뿐

윤석열 건폭몰이 이후  
건설노조 조합원 41명 구속...  
현장엔 불법하도급·안전사고

# 윤석열 감옥

# 갈 때까지

# 숨 참음



'구속 취소'에 윤석열 지지자들  
다시 관저 앞으로...  
태극기·성조기 들고 '의기양양'

국민의힘,  
"대통령 구속 취소는  
사필귀정"

홍준표, "취소 환영...  
공소취소하고 탄핵도  
기각해야"

# 방심했다 법원검찰이 통수 친 건에 관하여

## 내란세력 엄벌 의지 없는 법원, 검찰은 법을 말할 자격 없다



전문 보기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을 법원이 취소했다. 검찰총장은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했다. 윤석열이 탄핵되기도 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거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어제 취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극우 세력은 사기충천해 축제를 벌이고, ‘즉각석방 안하면 위험’, ‘무리한 내란죄 기소야말로 내란’ 같은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처벌이 당연히 이뤄지리라 믿었던 시민들은 법원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

법원은 구속시간 계산에 문제가 있어 윤석열을 풀어줘야 한다고 한다. 핑계다. 평범한 사람들을 잡아두고 조사할 때는 문제없던 ‘매뉴얼’을 왜 하필 지금 문제 삼는가?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체 왜 권력자에게만 관대하게 작동하는가? 5천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다 실패한 내란 수괴의 인권을 법원이 지금 챙겨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 풀려나면 바로 경호처로 가서 증거부터 없애버리고, 내란 동조자들과 꼼꼼히 진술부터 맞추려 들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을 제대로 재판할 의사가 있기는 한가?

법원은 극우가 윤석열 체포에 분노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을 때만 해도 ‘법치 파괴 세력’을 응징할 것처럼 굴었다. 그러나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어떤 어려운 말로 포장하든, 법원이 결국 스스로 ‘법치 파괴 세력’에 동조한 꼴이다. 극우가 대중 시위를 벌이면서 힘을 과시하자, 내란의힘처럼 법원 판사들도 자신의 본질적 보수성에 의해 극우에게 이끌리고 있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란 얼마나 내로남불 그 자체인가. 어제 법원은 구속취소를 하면서, 오늘(3/8)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경찰의 ‘행진 부분 금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은 주말 집회에 대한 경찰의 제한을 계속 편들고 있다.

검찰도 한통속이다. 1월에 겨우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바로 기소하지 않았고, 전국 검사장을 불러 토론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 늦장대처가 결국 구속취소의 빌미가 됐고, 이제는 항고조차 안 하겠다. 이미 검찰은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해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증거인멸의 길을 터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법원과 검찰을 두고 오히려 이번에 절차상 하자를 없애 확실히 처벌하려는 큰 그림 아니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으니, 안일해도 너무 안일하다.

지금 극우가 법원과 검찰을 움직이고 있다면, 헌법재판소도 그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불길한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 가능성과 구속취소는 별개’라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도 검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행복회로 돌리기는 당장 우리가 더 큰 행동에 나서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법원과 검찰 모두를 규탄하고, 엄정 수사와 신속 재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필요하다. 법원과 극우의 백래시, 헌법재판소의 동요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필요하다. 여전히 광장의 시간이다.

## 내란동조 세력과 혐오 세력은 한 몸, 극우에 맞서야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전문 보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광화문 극우 집회 주도,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성소수자 혐오집회 주도, “동성애 질병으로 격리해야”  
“젊은 여성 신도 동침 요구 동의해야 나의 신자”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여의도·지방 극우 집회 주도, 성소수자 혐오 집회 주도  
“차별금지법, 신사참배법보다 열 배 위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2020년부터 안티페미니즘 집회, 여성혐오 활동 개시  
이화여대 난입, 탄핵 촉구 학생 대상 욕설·폭행

극우 세력의 주류화는 최근부터지만, 이들의 계보는 더 오래됐다. 90년대 이후 성장을 멈춘 보수 기독교계가 조직 성장을 위해 ‘빨갱이’에 이어 ‘동성애자’를 사회 타락의 새로운 상징으로 정하면서, 전광훈과 손현보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세를 불려왔다. 얼마 전 이화여대를 ‘월담’해 탄핵 촉구 학생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역시 오랫동안 여성혐오 그 자체를 위해 살아온 인물이다. 극우의 핵심은, 바로 혐오 세력에서 기원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보수 기독교의 압력에 타협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윤석열 체포가 2주 넘게 미뤄지며 최근 더 세력을 키워왔다. “사회대개혁”을 위해선 이들의 자신감을 꺾고 다시 음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혐오 세력의 요구가 관철되는 상황이라면,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미래가 올 수 있을까? 윤석열 처벌 운동은 극우를 분명하게 겨냥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한다면, 우리는 법원 앞에서 그들보다 더 큰 규모로 집회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사회대개혁”을 만드는 길이다.

